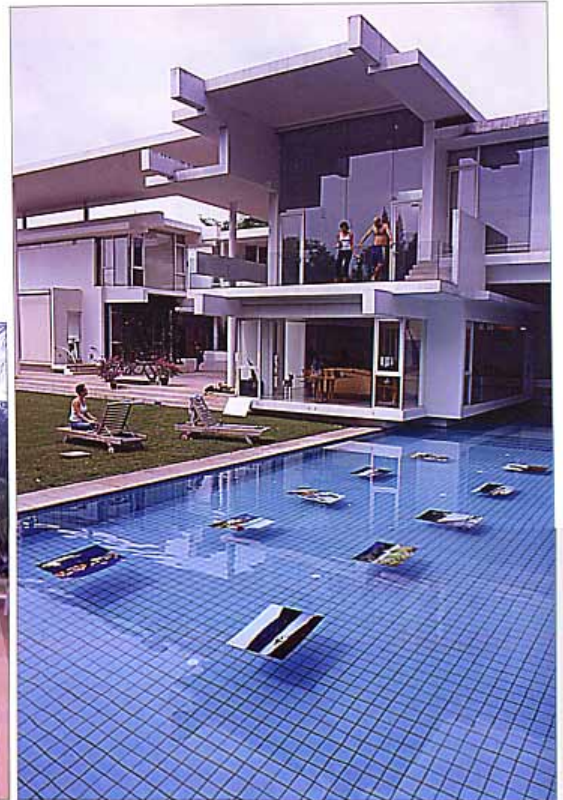


물과 이미지와의 깜짝 쇼!



수중 그래픽 전시회를 통해 만나는 사인 앤 디스플레이의 세계, 과연 물 속에서 비쳐지는 이미지와 영상물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또 그들이 부르짖는 몸짓은 어떻게 승화될까? 이번엔 물과 함께 하는 사인을 만나보자.

글 | Berty Cadillac, Stingray Project - UnderWater Exhibitions/ berty@stingray-project.com



물과 이미지와의 상관성 연구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사진작가인 Berty Cadillac씨는 일명 가오리 프로젝트(Stingray-Project)를 통해 이색적인 이벤트를 열고 있다.

이벤트는 다음 아닌 각종 사진물과 영상물, 그래픽을 수영장이나 쏫빙, 바다 속 등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첫 번째 수중 전시회는 2002년 9월 21일에 비개방 장소인 싱가포르 주재 아일랜드 대사관 근처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수영장과 거대한 지택은 가오리 프로젝트 개최에 훌륭한 특이성을 부여했다. 그날의 수중 사진 전시회는 전시회 개최사실만 통보되었을 뿐,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관람객들은 도착하자마자 이벤트의 컨셉트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이른바 '깜짝 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깜짝쇼의 충격효과는 완벽했다.

대형 사진들을 수면 아래에 눈에 띄지 않는 줄로 고정해서 물위에 전시했다. 물론 이미지는 플라스틱 지지대에 의해, 방수 코팅 처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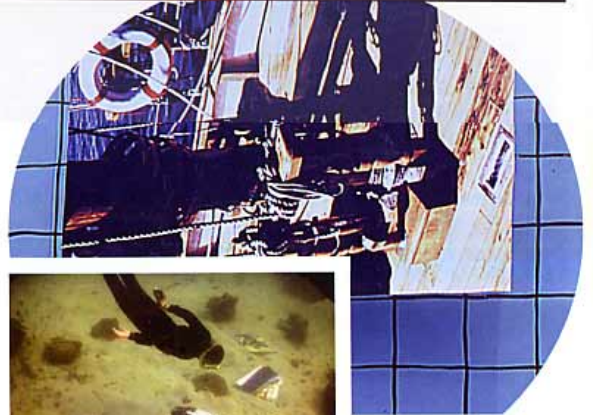
그는 이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층 고무되어 이번에는 태국의 비치 리조트와 싱가포르의 Avantgarde 호텔의 수영장에서 다시 수중 전시회를 열었다.

사진 촬영은 빛을 기록, 저장하는 것이지

만, 수중전시 기간에는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도맡았다. 햇빛과 함께 출렁이는 수면, 그 햇빛은 이미지에 출렁이는 물결과 함께 춤을 추었다. 수중에 전시된 이미지들은 이 순간만큼은 중력에서 벗어나 바다의 가오리처럼 날았다. 사진과 이 특이한 갤러리간의 상호작용이 예술적으로 승화된 것이다.

누구나 이 수중 전시회를 관람하게 되면 침묵과 휴식이라는 마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에게 잠재된 예술적 감각과 직관에 대해 생각해 한다.

공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구성 요소이고 우리는 이 공기를 통해 예술을 추



구해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림, 조각, 사진이 보여지는 것은 당연시되어 왔다. 여전히 많은 구성요소들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종종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소들도 있다. 우리가 거부하려 해도, 예술가의 명성이나 예술품의 가격 등과 같은 것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또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유명한 갤러리나 박물관은 전시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올해 5월에는 최초로 바닷가에서 이 수중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단 2~3시간에 걸쳐 이 임시 쇼 케이스는 자연과 예술을, 스

털 사진들과 수중생활을 각각 환상적으로 연출해냈다.

새로운 컨셉트의 'Stingray 전시회'는 산호들과 형형색색의 물고기에 둘러싸인 가장 독특한 아트 갤러리인 태국의 남쪽에 위치한 Koh Tao섬에서 열렸다. 비록 바다 속에서는 처음 시도한 이벤트였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전시회 개최 행사에서는 샴페인 대신 마나로 만들어진 칵테일을 제공했고, 물고기들도 이 칵테일을 즐겼다. 가상 밖의 한 면에 아름다운 풍경과 보트들의 사진을 디스플레이했고, 그 대비된 색상들은 더욱 훌륭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다른 한 면에는 환경오염과 공해를 암시하는 흑백 사진들로 부정적인 효과를 연출했다. 이 이미지들은 자동차 매연, 공장의 굴뚝, 쓰레기와 교통체증 등을 특징적으로 나타냈고, 정치적인 관심들과 무관하게 우리의 환경이 매우 위태롭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환경오염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전시했다.

가오리 전시회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무더위를 한껏 날릴 이 이색적인 이벤트는 단순히 시각적인 표현예술이 아닌 모험과 도전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인 것이다. 